

# 러시아 농업 정책과 전망\*

김 동 결  
(PT.Sweetyam Indonesia 이사)

## 1. 들어가며

러시아 농업은 소련의 해체와 구조조정 등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최근 몇 년 사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총 고용의 11%, GDP의 5%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러시아의 농업과 농축산물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은 곡물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러시아 선진농가들은 기술 및 경영에 대한 투자로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농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농업소득은 실질환율 상승과 무역 상대국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다. 러시아의 2000년대 달러, 유로 등 주요 통화에 대한 명목환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가격인플레이션(price inflation)이 미국, EU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아 2001-07년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13~14%를 보였다. 이후 러시아의 서구 식품에 대한 금수조치(food embargo)의 영향으로 심각한 식량 공급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국내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가금류를 제외한 축산물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 (simonkim97@gmail.com). 본고는 유럽의 농업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Agra Europe의 'Russia: Policy Impacts on Agricultural Production & Trade 2017'을 바탕으로 작성됨.

## 2. 러시아 농업 정책

### 2.1. 러시아 농업 정책의 발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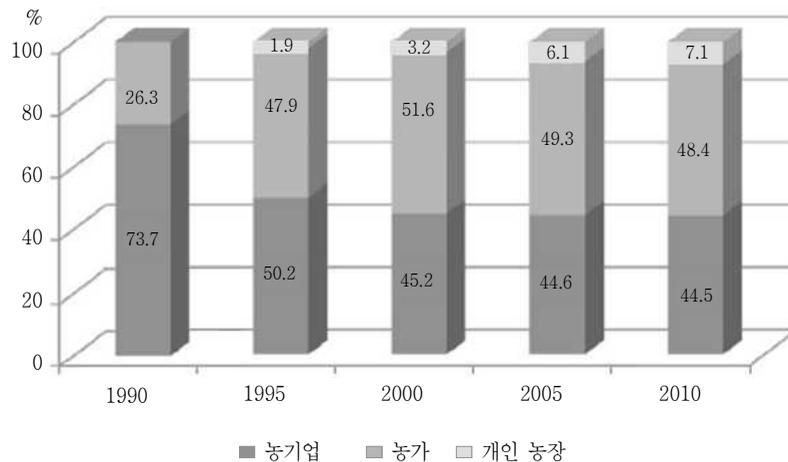
소련 붕괴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의 농업 정책 발전은 1990년대 시장변화, 2000년대 초 농업 및 농촌 분야의 포괄적인 정책변화, 2000년대 후반의 세계 금융위기, 2014년 3월 이후 서구 식품에 대한 금수조치(food embargo)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2.1.1. 1990년대

1990년대 농업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개입이 지속되었지만 공동 소유 농장의 개편, 토지개혁 및 민간부문 개발에 대한 지원 등 농업과 농촌의 제도적 틀이 변화하였다. 소유권과 노동 조직에 대한 개혁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새로운 경영 형태가 점차 제도화 되면서 농업의 산업화가 가속화되었다. 또한, 소규모 생산의 확대, 비효율적인 자원의 재분배, 농민의 동기 부여, 농촌의 빈곤 극복과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러시아의 농장형태는 농가의 비중이 1990년 26.3%에서 2000년 51.6%로 두 배로 증가한 반면, 농기업의 생산 및 경제적 효율성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러시아의 전반적인 농업 생산성과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림 1. 농장형태 변화 추이



자료: Int. J. of Soc. of Agr. & Food, Vol. 21, No. 1.

### 2.1.2. 2000년대 정책변화

농업 발전을 위한 중기적인 국가 정책은 2006년 농업개발법에 기초하며, 국내농업 생산을 촉진하여 농산물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 향상을 우선하였다. 특히 수입이 증가하는 축산업에 농업보조금을 투입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다. 또한 2009년 국립 곡물회사인 'United Grain Company'를 설립하여 곡물 수출을 늘리고 곡물 관련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힘썼다.

2000년대 초, 국가적 농업 발전 목표는 축산물 생산 증대, 소규모 농장(농가 및 개인 농장) 진흥, 농업농촌 전문가를 위한 주택 공급 등이었다. 정책은 농산물 생산량 증가, 적자 농기업 수의 감소,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러시아 총 곡물 생산량은 2000년 6,550만 톤에서 2008년 1억 820만 톤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세계 세 번째 규모의 곡물 수출국이 되었다.

### 2.1.3. 2008년 금융위기 영향

2008-09년 세계적인 금융 및 경제위기 이후 러시아의 농업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2008년 이후 식품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수출 규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후 2008-12년 농업발전 프로그램이 2013-20년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으로 교체되었다. 이는 농산물 국내 총 소비량의 대부분을 국내 생산으로 충족하고, 축산 및 유제품 생산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무역정책 측면에서는 2010년 1월 1일 러시아와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의 관세동맹 출범이 WTO 가입 외의 중요한 변화였다. 2014년 12월, 러시아는 EU의 對러시아 경제 제재조치에 따른 해외 신용과 투자 중단으로 경제위기를 맞고 2015년 초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직면하였다. 경제위기는 농산물 수출 시장에서 러시아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영향도 있었으나 균형 발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2.1.4. WTO 가입의 영향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무역 정책 변화, 농업 지원 프로그램 축소 등으로 농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012년, 러시아는 WTO 가입으로 2020년까지 관세를 전면 인하하게 되어 최종 평균 관세율은 8.4%가 될 전망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sup>1)</sup>

1)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등과 무역협정을 체결함. EAEU 회원국 간 무역에 관세와 기타 국경 조치가 없음.

의 공동 관세를 적용하고 러시아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2,634개 품목에 해당되며, 2016년 기준 농산물에 대한 평균관세는 14.6%로 전체 평균 관세인 8.3%보다 높다.

## 2.2. 식량안보 정책

2012년 러시아 정부는 식량자급 달성이라는 목적으로 2013-20년 농업개발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국내외 시장에서 러시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자의 이익을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이 정책을 위해 축산업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축산물 생산량을 2012년 대비 20%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의 식량안보정책은 품목별 자급 목표(곡물 99.7%, 사탕무 93.2%, 유지종자 87.7%, 감자 98.7%, 육류 및 육가공품 88.3%, 우유 및 유제품 90.2%)를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에는 수입 곡물과의 치열한 경쟁과 유제품, 육류, 과일, 채소의 공급부족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산적해 있다. 또한 러시아의 단위당 평균 수확량은 EU의 절반 수준이며 기후 변화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심한 특징이 있다.

## 2.3. 수입제한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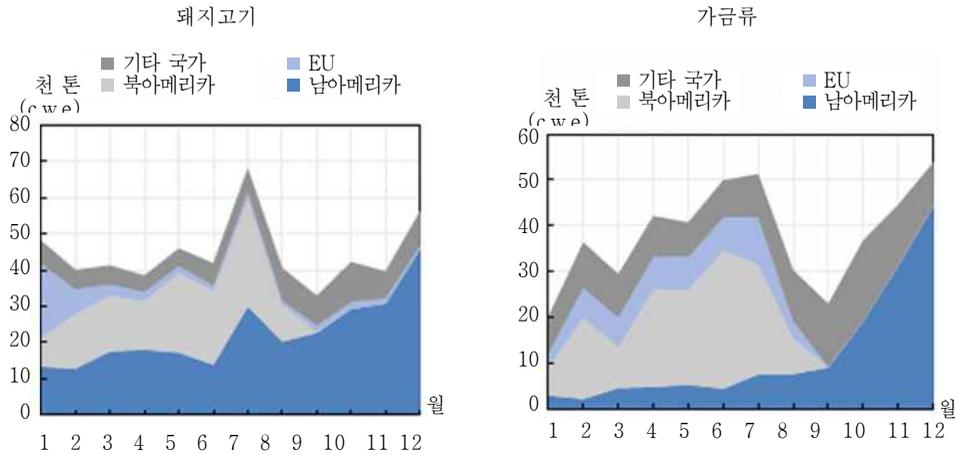
2014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무력개입, 크림반도 강제병합 등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대응하여 같은 해 8월 러시아는 EU,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의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food embargo)를 발표하였다.

### 2.3.1. 국가별 수입비중의 변화

수입제한 대상 국가의 농축산식품은 러시아 가구 식품 지출의 2/3에 해당되었다. 금수조치 후 해당 조치를 받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는 등 무역흐름이 변화하였다. 돼지고기는 수입금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품목이며, 대규모 농장을 위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금수조치의 영향은 수입원의 변화, 전체 농산물 수입량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對) 러시아 돼지고기와 가금류 수출국 중 브라질의 비중이 급증하였으며, 수입 제재 대상 국가인 EU 및 북아메리카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대(對) 러시아 주요 식품 수출국들은 러시아의 금수조치 이후에도 무역을 유지할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세계 시장에서의 무역과 생산, 소비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2014년 수출지역별 축산물 수입량 변화



주: c.w.e(Carcass weight equivalent)는 지육중량임.  
 자료: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 Inc. (GTI).

### 2.3.2. 생산 및 무역의 영향

EU와 미국의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제재조치는 2014년 루블화 평가절하와 상당한 폭의 인플레이션, 수입가격 상승, 소득과 임금 하락을 유발하는 등 거시경제적 문제를 악화시켰다. 또한, 러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감소시키고, 불안정한 금융환경 및 고금리를 유발하여 투자수요를 크게 위축하며 향후 5~6년 동안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EU의 세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다. EU는 2014년 초부터 우크라이나의 불안정화와 영토보전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에 항의하는 의미로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제재의 범위를 확대해왔고 러시아는 특정 EU 국가의 농산물에 대한 금수조치로 대응했다. EU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대응은 2017년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EU의 러시아에 대한 농식품 수출량은 감소했지만 대체 시장을 발굴하여 손실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폴란드 등의 EU회원국으로부터 러시아로 수입되는 닭고기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수입국이 대체되었다. 위의 EU 회원국은 러시아로의 닭고기 수출은 감소했지만 수출대상국의 변화로 수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새로운 수출대상국을 발굴해냈고, 육류 수출액은 러시아의 금수조치 이전 수준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러시아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러시아로의 수출이 자유로운 국가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수출대상국이나, 러시아는 관료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여 수입국 다변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EU공동연구센터(EU Joint Research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의 주요 곡물 자급률은 충분히 높으나, 축산물에 대한 자급률은 점차 감소하여 전체적인 식품 자급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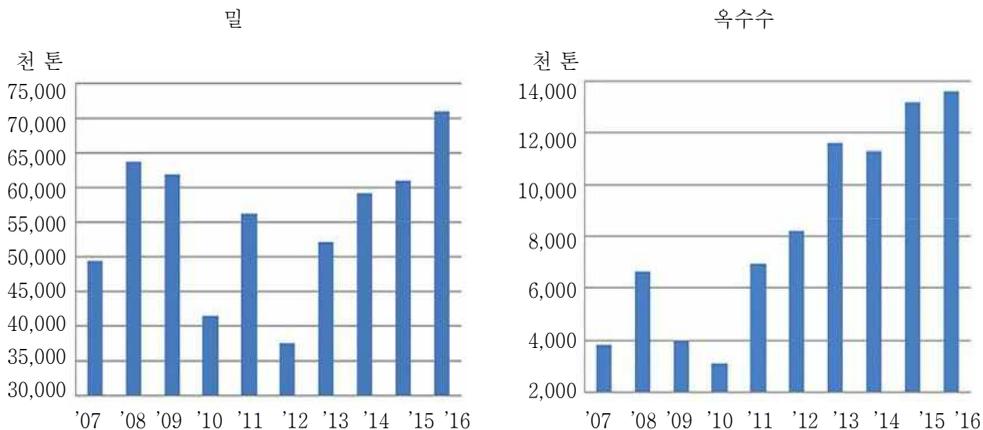
### 3. 러시아 농업 생산

#### 3.1. 곡물

러시아는 곡물 재배와 수출 확대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러시아 총 곡물 생산량은 1억 1,800만 톤으로 추정된다.

2016년 러시아 밀 생산량은 7,110만 톤으로 추산되는데, 세계적 밀 재고량이 많고 러시아의 수출 관세 및 루블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2016/17년 밀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러시아 밀 생산량은 연도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지난 9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3. 곡물 생산량 추이



자료: Informa Economics.

---

2017년 러시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43만 6,000톤 증가한 1,360만 톤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은 2016년 267만 ha에서 2017년 280만 ha로 증가하여 주요 사료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정책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옥수수는 농경지 정리와 종자개량 등으로 생산성이 개선되었으며 2011년 이후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품목이다.

### 3.2. 낙농

금수조치로 국내의 우유 및 유제품 생산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있으나 최근 2년간 투자 감소로 인해 2017년 전국 젖소 사육두수는 전년대비 3% 감소한 732만 두로 추정된다. 2017년은 국내 소비 감소로 치즈와 버터, 우유(whole milk)<sup>2)</sup>, 탈지유의 생산이 전년대비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낙농업은 가장 산업화가 더딘 분야로 기업농의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개인농장에서 생산된 원유는 유통이 어려운 문제로 향후 개인농장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버터 생산량은 24만 5,000톤으로 전년대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버터의 수익성 감소로 2015년보다 5.7% 감소한 수량이다. 2017년 우유 생산량은 3만 8,000톤, 탈지유는 6만 5,000톤으로 전망된다.

### 3.3. 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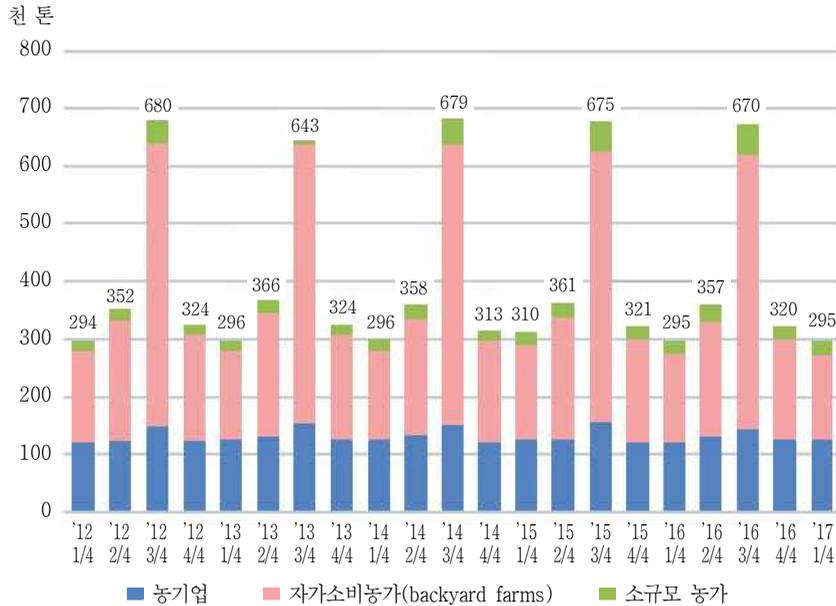
러시아의 육우(肉牛) 분야는 자본과 투자 부족으로 낙농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2017년 가축 사육두수가 전년대비 2% 감소하고 쇠고기 생산량도 13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 소비량은 쇠고기가 전년대비 1.3% 감소한 192만 톤, 돼지고기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328만 톤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축산농가가 전체 축산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쇠고기 생산량은 러시아 소비량의 68~69% 수준을 유지하며, 국내 생산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육우의 사육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고도로 산업화된 돼지 및 가금류 산업과 달리 육우는 수익성이 낮고 현대화에 필요한 장기자금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

2)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원래의 우유.

그림 4. 쇠고기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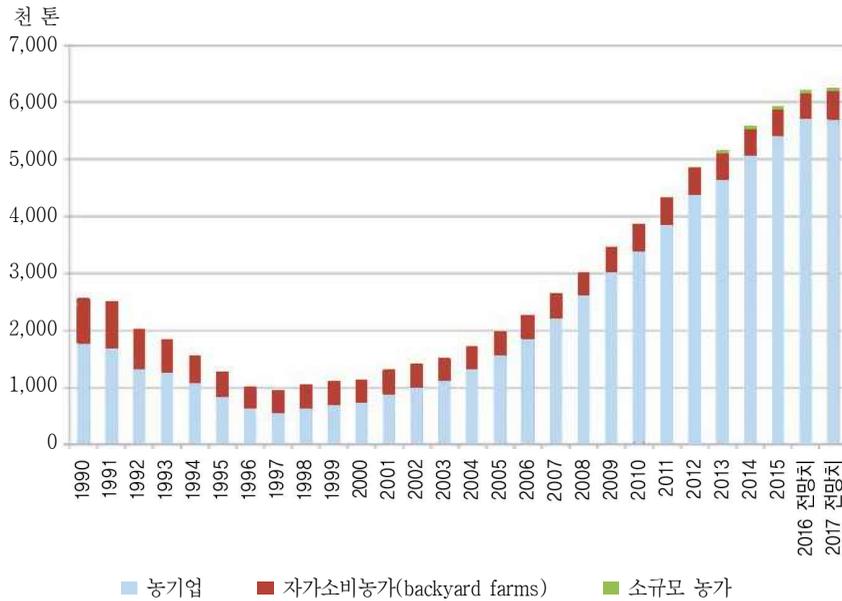


자료: Rosstat; 2016 and 2017 FAS/Moscow forecast (Not Official USDA Data).

2017년, 젖소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농장에서는 우유 생산 시설의 현대화로 우유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어 도축용 젖소가 감소하였다. 돼지 사육두수는 2017년 말까지 2,275만 두로 전년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는 생산성 증대를 위해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 종돈 생산성 및 도축 중량 증대 등 성과지표의 개선이 기대된다. 기업적 농장은 사육 두수를 늘리지만 소규모 농장의 경우 매출 감소와 생산비 증가 외에도 질병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 등 경쟁력 부족으로 도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러시아 가금류 생산량의 3/4 이상이 대규모 기업농에 의해 생산된다. 2000년 이후 대규모 기업농의 가금류 생산량은 연평균 14%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2015/16년) 러시아 경기 침체기에 가금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금류 생산 업체는 생산과 가공, 유통 등 수직적 계열화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다. 2016년 러시아 가금류 생산량은 370만 톤으로 전년대비 4% 증가하였고, 2017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0.5% 증가하여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가금류 생산량 추이



자료: Rosstat; 2016 and 2017 FAS/Moscow forecast (Not Official USDA Data).

## 4. 러시아 농식품 무역 전망

러시아 농식품 무역 패턴은 향후 10~15년간 러시아 농업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생산량 증가로 육류 및 유제품의 수입은 줄고, 밀과 해바라기씨 등 곡물의 세계 주요 수출국 지위는 유지하지만 국내 수요에 따라 그 양은 달라질 것이다. 농식품 수입은 러시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12-16년, 농식품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수입액은 전체의 16%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곡물 등을 수출하면서 육류 및 가공식품 등 고부가가치 식품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OECD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러시아 국내 곡물과 유지종자 가격은 세계 시장 가격 이하이고 육류 및 유제품의 국내 가격은 세계 시장 가격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러시아는 수직적 계열화를 이룬 가금류 분야를 제외한 육류 및 유제품의 순수입국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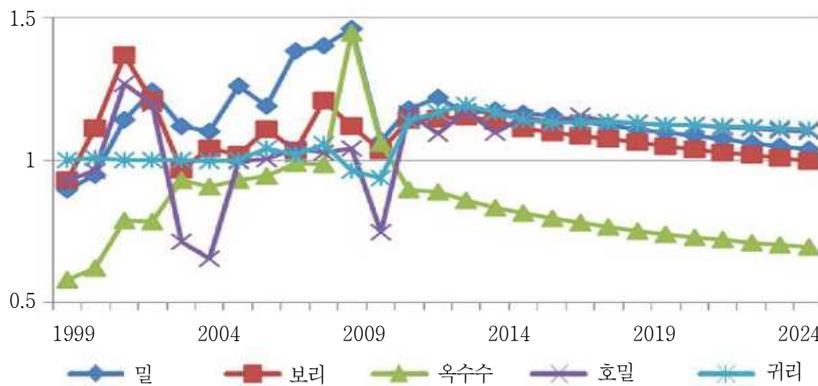
육류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보조금 지급 등 시장개입을 지속할 것이다.

향후 러시아의 곡물 자급률은 현재 수준보다 낮지만 해바라기씨 및 유채 씨앗을 비롯한 대부분의 곡물은 자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축산업의 성장은 사료 곡물인 보리와 옥수수의 자급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4.1. 곡물 및 유지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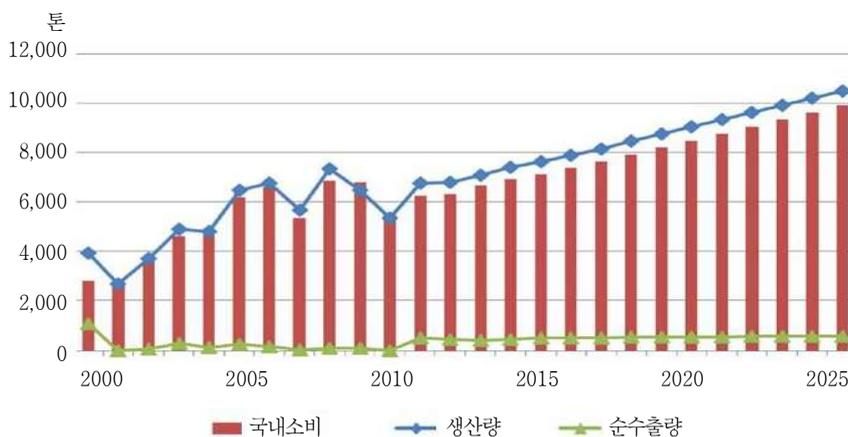
러시아 밀과 보리 생산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해바라기씨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와 보리의 자급률은 사료곡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곡물 자급률 전망



자료: JRC report - The agri-food sector in Russia: Current situation and market outlook until 2025.

그림 7. 해바라기씨 생산량 및 수출 전망



자료: JRC report - The agri-food sector in Russia: Current situation and market outlook until 2025.

## 4.2. 축산물

보호무역과 국내 수요 증가에 따라 러시아 국내 돼지고기 및 쇠고기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가격은 국제 가격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쇠고기 생산량은 감소하고 국내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의 경우,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소비량 증가폭이 더 크므로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금류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소비량 증가폭보다 더 크게 되어 향후 순수출국 위치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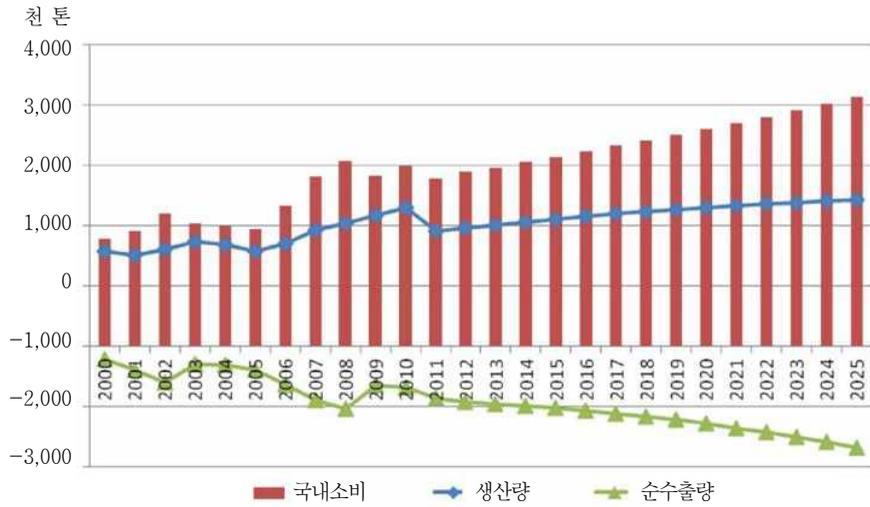
WTO 협정에 따라 축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축소되면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고 축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사료곡물 수요도 줄어 국내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증가에 따라 육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쇠고기 생산량 및 수출 전망



자료: JRC report - The agri-food sector in Russia: Current situation and market outlook until 2025.

그림 9. 돼지고기 생산량 및 수출 전망



자료: JRC report - The agri-food sector in Russia: Current situation and market outlook until 2025.

그림 10. 가금류 생산량 및 수출 전망



자료: JRC report - The agri-food sector in Russia: Current situation and market outlook until 2025.

### 4.3. 우유 및 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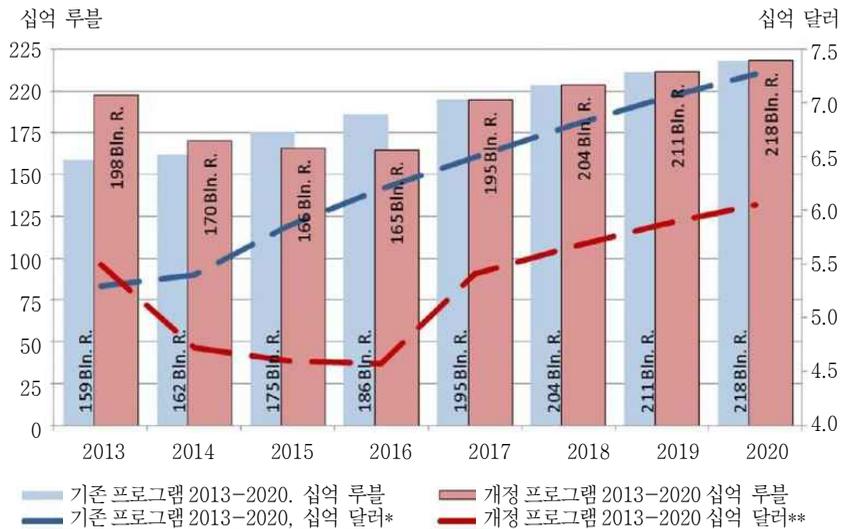
우유와 유제품은 생산량이 증가하나, 경제 성장에 따라 수요 증가폭이 커 2020년 이후 국내 가격이 상승하고 순수입국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유 생산은 구조적인 적자와 낮은 품질로 경쟁력이 낮으므로 향후에도 산업적인 구조변화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 5. 러시아 농업의 잠재력

### 5.1. 생산량 증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이면서 토지개량과 자본 투입 등으로 향후 생산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재배면적을 늘리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현대적 기술과 장비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현재보다 80%까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인프라, 교육, 연구 및 생활여건 개선과 농업의 근대화와 수출입 제한 완화 등 안정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림 11. 농업 예산 지출 계획



주: \*는 2012년 환율인 30루블/달러이고, \*\*는 2014년 환율인 36루블/달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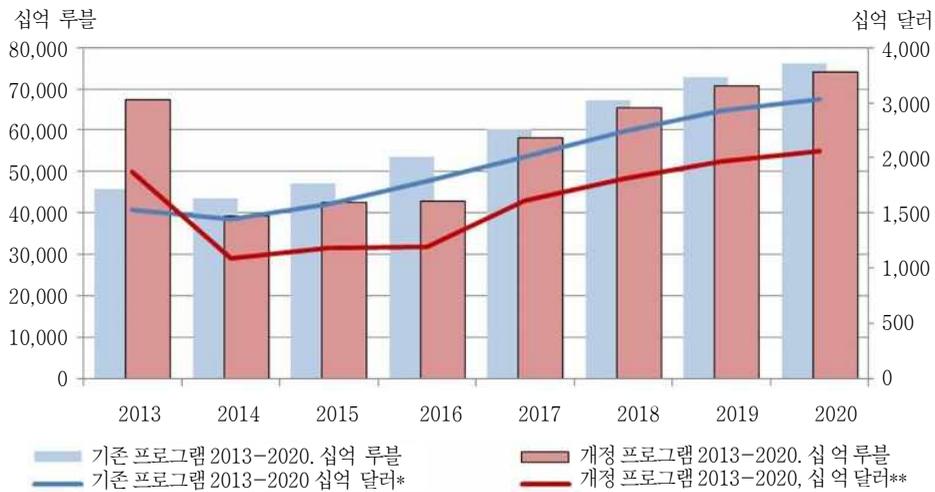
자료: FAS GAIN report May 6, 2014.

일부 전문가는 적절한 투자와 교육이 뒷받침된다면 러시아 농업이 EU 농업보다 전망이 밝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러시아 농업 생산자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노동력 확보, 관료주의 극복 등 과제에 직면해있다.

러시아 정부는 곡물 시장의 전략적 발전을 통해 향후 15년 동안 곡물 생산량이 25% 증가하여 1억 3,000만 톤까지 늘고 재배면적은 4,600만 ha에서 4,900만 ha로,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36톤에서 2.74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물류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농가들에게 더 많은 비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림 12. 곡물생산 예산 지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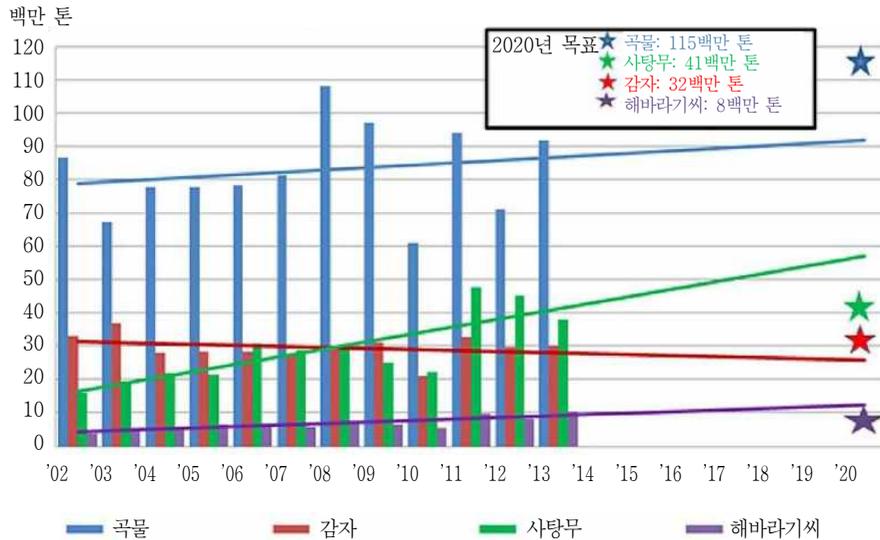
주: \*는 2012년 환율인 30루블/달러이고, \*\*는 2014년 환율인 36루블/달러임.

자료: FAS GAIN report May 6, 2014.

러시아 정부는 화학비료 사용 증가가 향후 수년간 곡물 생산 증대를 위한 핵심이라고 여기며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매년 1,800~2,000만 톤의 비료를 생산하여 이 중 국내 곡물 산업에는 전체 비료의 15%인 300만 톤만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ha당 비료 사용량을 현재의 33~34kg에서 100kg으로 늘리고 2030년까지 총 곡물 산업에 투입 되는 비료의 양을 800~1,000만 톤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16년 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료의 수출 관세를 높여 국내 시장 비료 가격을 낮추고 사용을 장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림 13. 농산물 생산량 목표



자료: FAS GAIN report May 6, 2014.

러시아 정부는 향후 10년간 3,650만 ha의 곡물 재배면적을 4,650만 ha로 늘릴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토지확대를 계획하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은 인구가 매우 적으므로 이민자들에게 자유로운 양도와 개발을 허락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류 등 인프라 개발이 덜 된 지역에서는 국가적 인프라 투자가 없이는 곡물 생산은 불가능할 것이다. 러시아 농가의 50%는 높은 생산비로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농가가 장기적인 투자로 농기계 및 저장 설비 등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 5.2. 생산성 증대

최근 USDA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종자 및 비료 등 생산비 증가와 생산기술의 부족, 재정적 제약 등은 생산성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미래 농업 정책에 대한 OECD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의 농업 정책은 농업 생산 및 농식품 수입 대체를 위해 2013-20 농업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작목에서 자급률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식품 위생 및 기술규정에 근거한 비관세 장벽으로 무역 상대국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셋째, 정부는 경기침체가 농식품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입경쟁분야

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넷째, 농업 투입재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종자 생산 및 육종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다섯째, 보조금의 왜곡된 사용 등은 정책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농업경쟁력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림 14. 러시아 농식품 자급률 전망



자료: EU Agricultural Outlook: Prospects for EU agricultural markets and income 2015-25 European Commission DG Agri December 2015.

## 6. 결론

2014년 금수조치에 이후 러시아 국내 식량 생산 증대 목표는 더욱 공고해졌다고 할 수 있다. 양호한 기상조건과 국제시장 가격 상승으로 지난 3년간 러시아 곡물 생산과 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육류와 유제품 생산은 국내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했다. 금수조치 이전에 러시아는 이미 다양한 수입제한조치 수단을 통해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국내 생산 및 자급률 제고를 도모했었다. 역설적이게도 러시아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와 기술 전수는 대부분 서구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2017년 러시아의 곡물 생산량은 양호한 기상조건으로 지난 40년 가운데 가장 많은 약 1억 1,700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축산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5% 증가하고 낙농부문은 1% 증가할 전망이다. 모스크바 농업연구소(IKAR)는 2017년 농식품 수입액이 235억 달러로 금수조치 이전인 2013년 432억 달러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15. 농식품 수출입액 추이



자료: Russian customs (2016 figure = IKAR forecast).

러시아의 인구는 세계 전체의 2~3%이나, 농경지는 세계의 10% 이상, 민물자원은 세계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잠재력은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식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낮으며 이는 가공공장 등에 대한 재정적 투자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기계 보급, 수의학 발전, 물류 인프라 개선과 농업관련 연구의 실질적인 투자와 정치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Agra Europe. 2017. Russia: Policy Impacts on Agricultural Production & Trade 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러시아 경제동향 및 뉴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